

봄바람 가득 매화향기도 가득

함평천에 매화나무 2500그루 식재

함평군이 함평천 일원에 매화 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한다. 함평군은 군민들이 현수한 나무를 심는 '내 나무갯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함평천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매화나무 2500여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군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함평천 주변에 유실수인 매화나무를 심어 관광객 유치와 농가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민과 출향유능은 물론 군 산하 공무원, 관내 기관 사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내 나무갯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가자들이 나무심기 행사에서 자기나무를

직접 식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증자의 이름을 표기할 '현수목 표찰'을 설치해 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현수목 식재로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증자들에게는 주말이나 휴일에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나무를 가꾸고 건강을 다지는 웰빙코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수목 가격은 1그루 당 4만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산림조합, 읍·면사무소에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은은한 향기와 화사한 꽃으로 이른 봄소식을 전해주는 매화나무를 식재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목포 일자리 3년내 300개 창출

市-경실련 업무협약...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목포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경실련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등 활발한 정보교류로 '멘토'(mento) 역할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향후 3년 이내에 3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간병·가사지원·환경·재활분야에 7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서 취약계층(105명)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은 ▲목포 이주외국인센터(통역·식품) ▲(사)우리가 꿈꾸는 세상(간병·제과) ▲목포YMCA 희망지원센터(보육·양재) ▲(사)한결음더(가사) ▲(유)유비에도(재활용) ▲순생태연구소(교육·환경) ▲(주)미향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 등 7개소이다.

시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보건과 사회복지·문화·예술·관광·운동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달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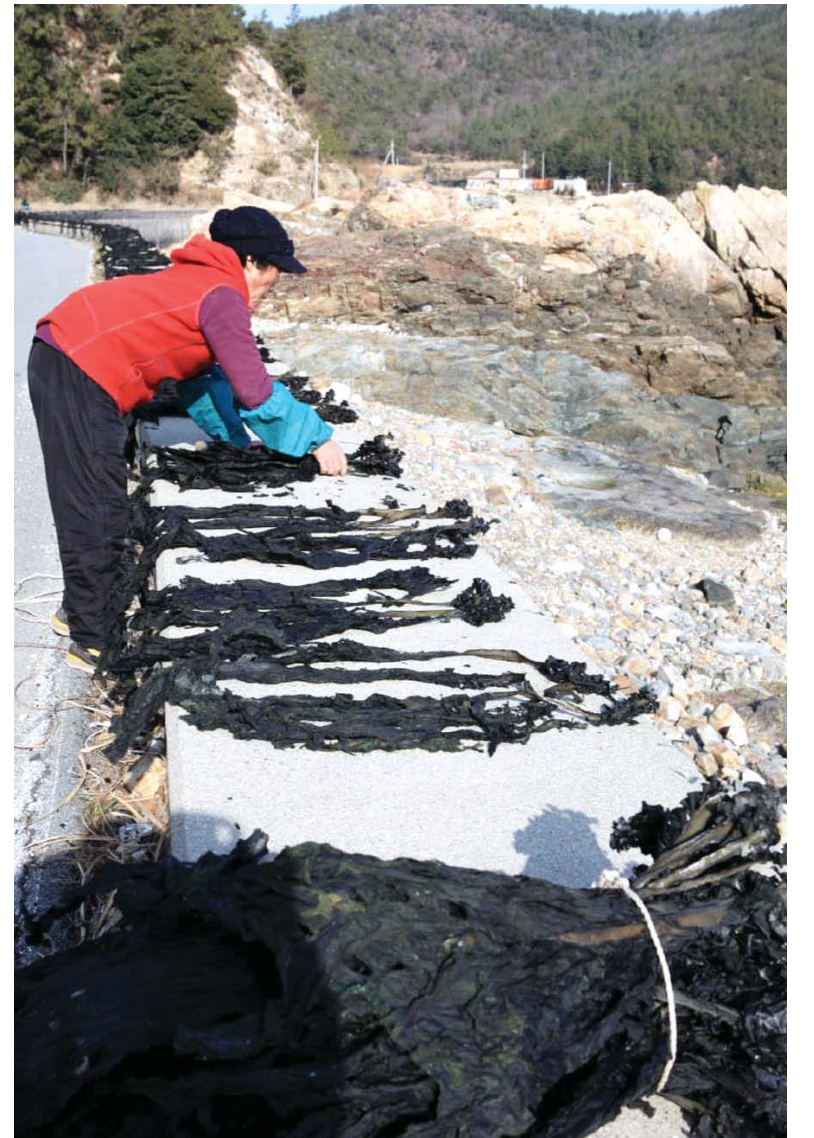
공모결과 사회복지, 환경, 스포츠 분야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공모한 6개 기업은 이달중에 현장실사와 전남도육

성위원회 심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정종득 시장은 "앞으로 경실련과 상호 공동노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사회적 기업=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전남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연산 돌미역은 말릴때도 자연 햇볕으로

완도군 신지면 동고마을 부둣가에서 한 어민이 갯 뜰에 자연산 돌미역을 말리고 있다. 완도산 돌미역에는 갈슘, 요오드, 미네랄 등 인체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 제공>

해남 삼산천, 주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

쉼터·자연학습·조깅코스 등 하반기 착공

해남 삼산천이 친주민공간인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주민 여가공간 확충과 함께 하천 생태계 및 하천문화 보전을 위해 삼산천의 9.75km 구간을 친수지구와 보전지구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군은 삼산천을 '새와 사람, 바람, 풍경이 머물다'라는 주제 아래 곳곳에 쉼터를 조성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삼산교 하부쪽을

여름철 주민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천구역내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통수 기능이 가능한 고수부지로 정비해 수변문화공간과 여새길, 가족쉼터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어성교에서 광천교 사이 6.5km 구간은 삼산천 수경관 관찰과 자연학습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병행하는 조깅코스 로 이용할 계획이며, 곳곳에 조류 관찰대 및 쉼터를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성교에서 광천교사이에서 조성되는 자전거 도로는 기존 제방을 이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읍에서 대흥사간 지방도 4차선도로에 계획돼 있는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강변을 주황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 저감대책으로 최근 국지성폭우 등 강우양상을 고려해 침사지를 설치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진도농기센터 '벼 무늬점파' 시범재배

을 지산면 보전지구 50ha

진도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한희석 박사를 초청해 '벼 무늬점파' 특강을 실시했다.

농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은 새로운 벼농사 기술인 '무늬점파 재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자라 없이 벼를 점진히 뿌리는 방식의 '벼 무늬점파' 재배기술은 일

반 관행재배에 비해 노동력이 35%, 생산비 23%가 절감되는 획기적인 작파 기술이다.

군은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줄어드는 노동력 해소를 위해 올해를 '벼 무늬점파 정착의 해'로 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1000ha의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범적으로 지산면 보전지구에 50ha의 '무늬점파' 재배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park@

해남군, 범정스님 생가 복원 추진

해남군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범정스님 생가를 복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지자체와 군의원, 사회·기관단체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조만간 정관과 규약 제정 등을 거쳐 생가복원과 추모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태어난 범정스님은 평소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실천했으며 지난 2010년 3월 입적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북

전북, 우수 종자개발 박차

방사선 이용 육종개발 허브 육성 정읍·김제에 연구단지 조성기로

전북지역이 방사선을 이용한 곡물·화훼류의 육종개발 허브로 육성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종자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주요 실천 방안이 도내에서 추진돼 전북지역이 '방사선 육종 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방사선 육종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은 김제의 '민간육종 연구단지'와

정읍의 '방사선 육종연구센터'가 맡게 된다. 방사선 육종은 감마선 등을 식물 종자나 모체에 쬐어 식물체의 유전변이를 유도해 우수한 형질의 돌연변이체를 선별하는 기술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품종개발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방사선육종 연구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오는 2013년까지 들어서게 되며, 모두 132억원을 들여 육종 연구에 필요

한 각종 실험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센터가 가동되면 방사선을 활용한 다양한 변이 개체 선별과 육종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김제시에 추진하는 민간육종 연구단지(일명 '씨드밸리'= Seed Valley)는 오는 2015년까지 270억원을 들여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20여 개 종자업체를 유치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사선 육종연구센터와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연계해 종자산업의 민간역량을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경찰, 중앙초 신입생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눈높이 맞춰... 초교 27곳 계획

남원경찰서(서장 박춘원)는 최근 중앙초등학교 신입생 136명을 교통안전 교실을 열었다.

이번 안전교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서 어린이 스스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학교생활과 교통안전에 늦는 1학년들을 위해 교육용 동

영상을 보여주면서 ▲골목길 이동시 주의사항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5원칙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등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하는 교통안전 지식을 강조했다.

남원경찰청 앞으로 27개 초등학교 신입생 758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외국학생들, 선운사 템플스테이서 색다른 추억쌓기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고창을 찾은 미국 조지아대학교 방문단이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선운사(주지 법만)는 올해 정부 지원을 받아 외국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국 15개 사찰에 선정됐다. <고창군 제공>

단신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26.6대 1

전북도는 "올해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81명 모집에 7462명이 응시해 평균 2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8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선별예정 인원이 지난해(183명)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시 세무1급은 13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주시 행정 9급은 119대 1, 전주시 보건 9급 75대 1의 순이다. 필기시험은 5월 12일이며, 합격자는 6월 8일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고문헌 속의 군산' 발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 지역 스토리텔링 기초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 자료집인 '고문헌 속의 군산'을 발간했다.

박물관 개관 이후 첫 자료집인 '고문헌 속의 군산'은 고문헌자료 중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의 역사서인 '일분서기', '선화봉사고려도경' 등의 국역자료에서 군산관련 내용만을 정리한 책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동학농민혁명대상에 '동학혁명 유족회' 선정

동학농민혁명대상 제2회 수상자로 '동학농민혁명 전국 유족회'가 선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학계·시민회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양위원회(위원장 김생기 시장)는 최근 심사회의를 열고 제2회 대상 수상자로 '동학 유족회'를 결정했다.

유족회는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선양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상식은 '제45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5월 11~13일)때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대농경문화 '김제 벽골제' 발굴조사 착수

고대 농경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김제의 벽골제(사적 제111호)가 본격적으로 발굴된다.

김제시는 지난 15일 벽골제에서 발굴조사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開土祭)를 올리고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발굴조사를 맡게 될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은 1차연도에는 벽골제 제방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지역(1213㎡)을 시작으로 사적지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정밀 지표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남원에 5성급 '스위트호텔' 문 열어

객실 59실·사우나·식당·카페·연회장 등 갖춰

남원시에 5성급 관광호텔이 1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스위트호텔 남원'은 주천면 용담리 5만54㎡에 59실의 객실과 사우나·바·식당·카페·강의장 등을 갖추었다.

스위트호텔 남원은 ㈜교원구몬그룹이 2010년 6월 착공해 300억원을 들여 21개월 만에 준공했다.

남원에 관광호텔 입주로 내달

부터 치러지는 제82회 춘향제 기간 관광객에게 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직원 50명 가운데 지역출신이 35명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호텔 김세웅 연수지원팀 과장은 "전북 최고의 명품호텔로 육성해 관광 남원의 숙박 인프라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